

2025년 메리 워드 주간



메리 워드 - 희망의 순례자



차례 및 기고

■ 들어가며:

- Lissy Chenathuparambil CJ 인도
- Violet Mtongwe IBVM 케냐
- Theresiah Muoti IBVM from 케냐(탄자니아 파견)

■ Day 1: 메리 워드 - 희망의 슬레자

- Gill Goulding CJ 영국(캐나다 파견)
- Mabel Rudum IBVM 인도

■ Day 2: 메리 워드 - 길을 찾아서

- Mary Carton IBVM 미국
- Karuna Shrestha CJ 네팔

■ Day 3: 메리 워드 - 여정의 시작

- Maria Kalonga CJ 짐바브웨(모잠비크 파견)
- Rosalina Belo IBVM 동티모르(필리핀 파견)

■ Day 4: 메리 워드 -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슬레

- Elena Cimpoeșu CJ 라틴유럽관구/루마니아
- Genevieve Maigrot IBVM 모리셔스

■ Day 5: 메리 워드 - 슬레 중에 받은 운흥

- Sara Rudolph IBVM 캐나다
- Sabine Adam CJ 중유럽관구/독일

■ Day 6: 메리 워드 - 시복시성을 향한 여정

- Elizabeth Cotter IBVM 아일랜드
- Agnesa Jenčíková CJ 슬로바키아

■ Day 7: 21세기 희망의 슬레자들

- Delmence Prevost 남아프리카 메리 워드 베허
- Esther Finis 독일 메리 워드 베허

■ Day 8: 단일화를 향한 슬레

- Veronica Fuhrmann CJ 총원장
- Carmel Swords IBVM 총원장

■ 그림: Susan Daily IBVM

종종 불확실성과 갈등에 가려진 세상에서 메리 워드의 지속적인 이야기는 희망과 회복력의 등불로 빛나고 있다.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담은 “메리 워드: 희망의 순례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8일간의 묵상 시리즈로, 창립자 메리 워드의 놀라운 여정을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희년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메리 워드의 삶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평화, 사랑, 정의, 화해의 왕국을 다시 이루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점철된 순례의 여정이었다. 그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 이동만이 아니라 심오한 영적, 개인적 변화의 여정인 순례의 본질을 떠올리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을 맞아 우리에게 희망의 순례자가 되라고 초대하신다. 교황은 우리에게 사랑과 연민을 전파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며 우리 공동체에서 희망의 대리인이 되라고 요청하신다. 이 적극적인 희망은 우리 주변의 세계와 소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평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평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이는 희망을 가시적인 친절과 연대 행동으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황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희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메리 워드는 삶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소명을 보여주고 있다.

메리 워드의 순례 여정에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투옥과 의심,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당장의 고난을 넘어, 여성이 사회에 온전하고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꿨기 때문이다. 메리 워드의 여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메리 워드의 삶은 희망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과 용기로 우리 창립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메리 워드의 이야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도전에 맞서고 보다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격려한다.

메리 워드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부름 받았다. 이는 우리의 희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우리 공동체와 사도직 현장에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육성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경에 맞서 끈기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인적,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사랑과 상호 지원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만들라는 부르심이다.

우리가 “**메리 워드: 희망의 순례자**” 자료를 통해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불굴의 정신에서 영감을 얻게 되길 바란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는 희망과 개인의 변화를 향한 더 큰 순례의 일부이며, 우리의 사도직을 통해 평화, 사랑, 정의, 화해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협력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메리 워드의 영원한 모범을 구현할 희망의 유산에 기여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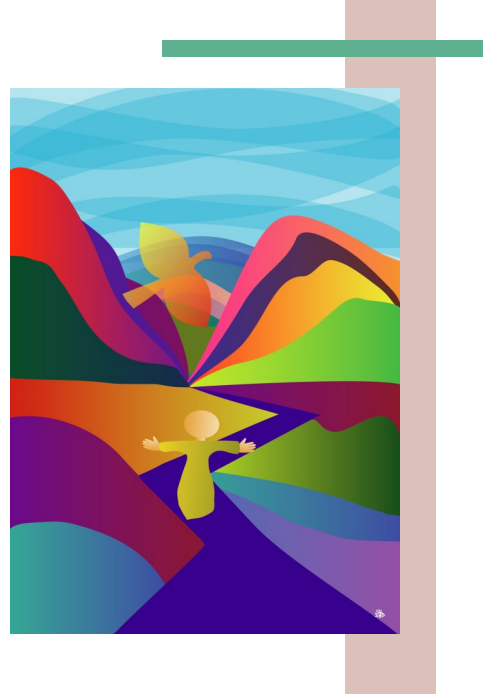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로 공감되는 내용을 패들렛(Padlet)을 통해 공유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 코드를 사용하여 글을 쓰거나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하며,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길 희망한다.

<https://padlet.com/mcloughlinrachel/mary-ward-week-2025-yercv9hmeh69q1np>



메리 워드 - 희망의 순례자

순례는 모든 종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순례자는 영적 여정을 떠나는 사람이다. 희망의 순례자의 진정한 아이콘인 메리 워드가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강력하면서도 온화하며, 희망과 인내를 가능하게 하셨다. 메리 워드는 수도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 깨달았을 때부터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이 어디로 이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메리는 수도생활이 가족, 친지,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며 순례의 길을 떠났다. 당시 이민자였던 메리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갈망했다. 이것이 바로 메리가 순례자가 된 이유이다.



수년에 걸쳐 인내로 가득한 식별의 순례 여정은, 그가 갈망하던 청빈 글라라회의 관상적 만족에서부터 같은 관상 정신에 뿌리를 두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사도적 수도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메리 워드의 초기 영국 생활은 박해의 연속이었지만, 할머니의 모범을 통해 신앙심 강한 여성이 어떻게 사회의 통념에 도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메리는 교회 생활과 특히 교육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봉사 활동에서 여성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틀이 필요했으며, 메리는 예수회 회헌에서 이를 발견하였다. 메리 워드는 실제로 창립 초기부터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따른 회원들의 양성과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온유한 봉사에 자신의 권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하

느님만 못한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며, 공동체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낯선 사람을 대하듯 예의를 갖추되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하라"고 촉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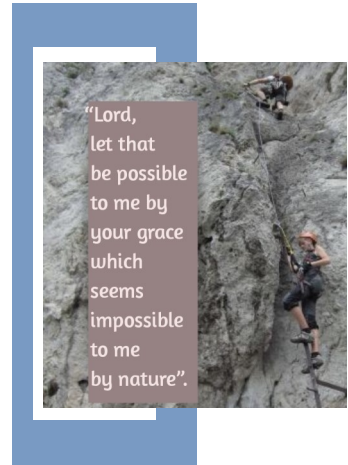
메리 워드는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서 새로운 수도회 계획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로마까지 장거리를 도보로 갔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평온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교황청 고위층이 수도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메리의 거룩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방식의 진정성에 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았다.



1631년 수도회에 대한 탄압과 비난에 찬 교황청의 칙서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바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다.

현실적인 물질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첫 동료들 간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사랑의 정신이 분명했다. 실제로 메리는 수도회에 합류할 사람들의 주요 특성으로 쾌활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자유, 정의, 성실은 우리 모두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을 특징짓는 요소였다.

이번 메리 워드 주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찰을 위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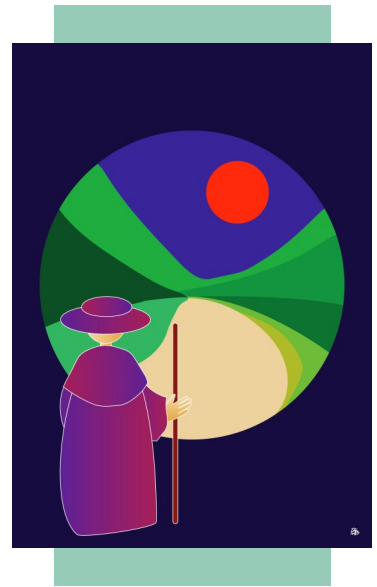
- ▶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위하여, 메리의 삶의 풍부한 자원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는가?
- ▶ 희망의 순례자로서 메리가 표현한 어떠한 덕목이 오늘날의 나에게 필요한가?

메리 워드 - 길을 찾아서

메리 워드는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깊이 사랑했다. 그의 꿈은 커져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도 늘어났다. 그는 하느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메리는 영국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 용감하게 봉사한 예수회원/사제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들처럼 현재 진행 중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보충규범 VII.1)에 협력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여성들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영혼의 선익을 이루는 데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Letter No.5: 님펜부르크 편지 모음집, Henriette Peters, p.349 참조) 수도자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폐쇄적인 수도자의 삶은 메리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과 삶에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즉 혼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였다. 대륙이 더 안전해 보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정기 회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에서 "희망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성심에서 샘솟는 사랑에 토대를 둡니다" 라고 하셨다. 메리 워드가 수많은 반대와 오해, 거부를 당하며 길고도 고된 여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주님과 그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메리 워드에게 희망의 원천이었다.





우리는 마태오 복음 11,28에서 "나에게 오너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당신께로 오라는 그분의 초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 주의를 깊게 들을 때, 우리는 찾고 있던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메리 워드는 그분과의 깊은 일치 경험을 하며 "그분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씩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것을 보았다 ... 그분이 나를 껴안아 주셨다"고 하였다. 우리는 메리 워드가 받은 이 특별한 은총 안에서 살도록 부름 받았다.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아 주신 그 체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며, 우리가 '하나 됨'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에 몰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손짓한다.

메리 워드는 끊임없이 내면의 움직임과 접하며 식별력을 키우고 이해를 다듬으며 하느님의 뜻을 진지하게 추구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 우리가 식별하는 가운데 확신과 열정, 풍성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성찰을 위한 질문:

- ▶ 나는 메리 워드의 진행 방식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가?
- ▶ 앞길을 식별하기 위한 나의 질문은 무엇인가?
- ▶ 나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 마음과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메리 워드 - 여정의 시작



모든 시작에는 개방성, 확신, 용기, 겸손, 사랑, 결단력,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로 이어지는 하느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메리 워드는 이 모든 덕성을 구비했으며, 그의 카리스마는 자유, 정의, 성실이라는 '의로운 영혼'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이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했다. 그래서 메리는 하느님의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분보다 앞서 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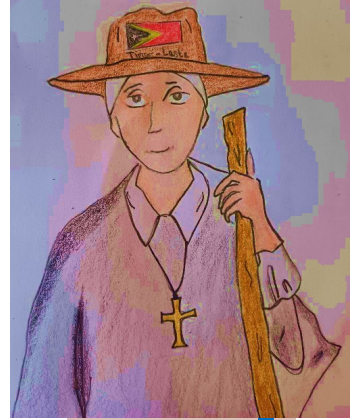
우리는 모잠비크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음식 등 새로운 선교지에서의 소소한 경험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는 마

치 단단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이 다른 식물처럼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받으려고 스스로를 밀어내야 하는 것과 같다. 메리 워드 역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모잠비크에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험이 결실을 맺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신앙 교육과 일반 교육, 보건 사도직을 통해 '때가 되면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는 메리 워드의 꿈이 현실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메리 워드의 묘비명인 '가난한 이를 사랑하고 ... 그들과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살아 내고자 한다. (Maria Kalonga - 짐바브웨)

나는 동티모르 바우카우 지역의 작은 마을 켈리카이라에서 1남7녀를 둔 9명의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굳건한 신앙심으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은 나에게 사랑, 믿음, 자유 등의 가치에 대해 잔잔한 열정을 심어주었다. 스물네 살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지원자로 입회한 후 나는 "큰 사랑과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라"는 메리 워드의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이 하느님의 귀한 선물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메리 워드의 놀라운 보물이 세상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깊이 느낀다.



나는 메리 워드의 비전을 떠올리게 하는 티모르 모자를 쓴 메리 워드를 그렸다. 이 그림은 메리 워드의 에너지, 자유, 진로, 충실, 헌신이 창조적인 에너지와 온전함으로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자유라는 중심 가치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 메리 워드는 자유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느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동료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은 메리 워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유산을 계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나는 메리 워드를 통한 이 자유의 정신이 동티모르에 전해진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는 순례 여정에서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있다. (Rosalina Belo - IBVM 동티모르 사도직 개척자)

메리 워드와 함께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내적 자유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찰을 위한 질문:

- ▶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새로운 사명이나 여정에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가?
- ▶ 나는 확신과 관대함으로 사랑과 평화, 자유와 정의의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메리 워드 -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순례

"모두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메리 워드의 소망이 곧 현실이 될 성스러운 길을 우리는 걷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메리 워드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서로의 말에 더 깊이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단일화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의 일치가 메리 워드 가족 전체의 정체성과 일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CJ와 IBVM은 각 총원의 특성을 발전시켜 왔으며, 각 수도회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

를 받고 있다. 이제 다른 총원의 발전을 상호간에 인정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다른 메리 워드 수도회 여성들과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개방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우리의 통합은 수녀들뿐만 아니라 이 여정의 동반자인 많은 평신도 협력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더 많은 국제 활동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사명을 위해 함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성숙함에 따라 우리는 함께 세상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상호성과 공정성으로 모든 인류를 환영하며 지구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불안, 외로움, 슬픔, 뿌리 없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도 동행을 갈망

한다. 시대의 필요에 귀 기울였던 메리 워드와 그의 동료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세상의 필요에 함께 응답하기 위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 받고 있다.



성찰을 위한 질문:

- ▶ 서로와 현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의 현실에 어떻게 더 잘 조울할 수 있을까?

메리 워드 - 순례 중에 받은 은총

메리 워드의 순례는 1611년 주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다: **같은 것을 택하라.** 이 부르심은 모순과 연결되어 있었다: **총장 신부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라.** 그때부터 메리는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고 느낀 일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에만 전념했다. 이 순례가 고된 여정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그 사명 자체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순례 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부르심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동반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경험을 - 심지어 부정적인 것까지도 - 그분과 나누는 것이었다.



가장 암울했던 1625년, 메리 워드는 네 가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이 은총은 유화생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은총 중에 어느 것도 메리의 상황을 외적으로 바꾸어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은총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방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통함이나 절망, 비방과 박해의 시기에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 유화생애 38: 삶에서 오로지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 유화생애 39: 고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유화생애 40: 한 개인으로서 자신은 중요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유화생애 41: 원수를 용서하면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원수는 친구가 된다.

수도회에서 순례를 통해 내가 받은 가장 심오한 은총은 수도회의 힘이 "부귀, 명예, 군주들의 호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힘, 통찰을 주시고 여정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께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유화생애 38) 이 은총은 캐나다 지구에서 나의 여정 동안, 특히 수도회 단일화 순례 여정을 함께할 때 위로가 되었다.



2023년 12월, 나는 캐나다 지구에서 종신서원을 했다. 이는 우리 수도회 수도생활에 대한 내 자신의 성소를 확인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였다. 또한 변화, 격변, 불확실성, 상실감으로 가득 찬 오늘의 현실 속에서 캐나다에 있었던 일을 완성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희망과 신뢰의 정신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공적인 약속이었다. 수도회를 진정으로 구성하는 것은 역사적인 구조가 아니며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 즉 나와 타인의 하느님과의 관계와 성령에 대한 식별력과 개방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수도회에 활력과 사명을 부여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메리 워드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현실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온전히 개방되어 지금 이 순간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 (Sarah)

성찰을 위한 질문:

- ▶ 메리 워드가 받은 은총 중에 현재 나의 현실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오늘 주님께 어떤 은총을 구하고 싶은가?

메리 워드 - 시복시성을 향한 여정

메리 워드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는 땅에 발을 딛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그의 여정은 험난했다. 그는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빛을 구하고 받았으며, 그에 대해 감사했다. 메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모든 것 안에서 오직 그분 만을 찾는 법"(유화생애 48)을 배웠다. 메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느님께서서는 의로운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메리 워드 연설 3)는 확신으로 평온을 계속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곳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행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인 하느님의 뜻을 사랑한 메리는 신실하게 인내하며 목표를 잃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 폐허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는 동료들에게 하느님을 기쁘게 찬미하라고 하였다.(영어 전기) 영원을 엿본 메리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천국의 자리를 주신다면"(영어 전기)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메리 워드는 자신이 시성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은 메리의 진가를 알았으며, 1909년 그가 창립자로 공표된 직후부터 시성 절차를 시작했다. 메리 워드가 수도회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애썼던 것처럼, 세계대전으로 인해, 바티칸의 '비밀 파일'과 그가 말하고 기록한 모든 자료, 그리고 메리에 대한 언급과 모든 기록 자료를 조사하는 등 길고도 고된 여정이 이어졌다. 바티칸의 신학 및 역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도회 설립 400주년이 되는 2009년에 '하느님의 종'인 메리 워드가 '가경자'로 선포될 수 있었다. 시복과 궁극

적으로 시성을 향한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기적'이 일어난 교구에서 '기적'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현재 여기에 이르렀다. '기적' 인정 단계가 통과 되면 동일한 사안이 교황청 시성부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성공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메리 워드를 "복자"로 선포할 수 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을 위한 그분의 때가 있음"(1625년 편지)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훌륭한 여성들과 우리 뒤에 올 여성들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메리 워드의 시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메리 워드는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 평범한 것들의 성인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평범한 것들 - 예를 들어 메리 워드를 향한 전 세계, 특히 메리 워드 가족과 교회 성직자들의 기도와 신심에 대한 증거가 메리 워드를 복자로, 그리고 때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성찰을 위한 질문:

- ▶ 메리 워드를 평범한 것들의 성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 오늘 선을 행하기 위해 메리 워드가 당신을 초대하는 시대적 표징은 무엇인가?
- ▶ 개인으로나 공동체 혹은 관구회원으로, 가경자 메리 워드의 벗 또는 협력자로서 메리 워드의 시복시성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21세기 희망의 순례자들



메리 워드의 동반자들에게 **희망의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 방식 그 이상의 것이다.

제인 CJ 수녀는 "의로운 영혼을 우리의 DNA로서, 우리가 그 프리즘을 통해 살아가는 자유, 정의, 성실, 기쁨의 네 가지 독특한 은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는 메리 워드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자이며, 평화, 정의, 연대, 성실, 평등에 대한 희망의 순례자이다.

메리 워드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성 이나시오와 메리 워드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 우리 각자는 다른 곳에서 출발하여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갈망과 목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우리는 이 희망을 서로 나누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한다. 우리는 이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으며 선의의 사람들 안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1609년 이래 그 외면이 계속 확장된 메리 워드의 동료들은 우리의 집이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사도행전 17,28)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순례자가 되었네 - 21세기 사람들은 순례자라네
 우리는 여정 중이라네 ... 우리가 있는 세상, 신비 속으로
 여러 길 ... 갈바리아로, 엠마오로, 집으로, 교회로,
 다마스쿠스로, 곧은 길로, 일터로
 우리는 함께 혹은 혼자 만나고 헤어지며,
 때로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여정에 있네
 우리는 움직이네. 우리는 그룹으로, 짝을 지어 혹은 혼자 움직이네
 21세기 사람은 순례자, 다름을 지닌 순례자라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로 묶어주네
 마카레나는 순례 여정 중에 멈추고
 미래를 위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세상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남쪽으로 왔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네
 순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 깊숙이 또는 세상 밖 어딘가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의 향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향유를 필요로 하네
 그것은 용기 있는 순례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네
 언제 걷고, 언제 달리고, 언제 멈추고, 언제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손을 내밀고
 언젠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날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또는 성큼성큼 걸거나
 점프를 하면서 움직인다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옳았네, 메리 워드는 항상 옳았네
 메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이끄네

메리 워드에게로 우리를 이끄네, 우리를 이끄네!

성찰을 위한 질문:

- ▶ 어떤 점에 공감하는가?
- ▶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 의로운 영혼이 당신의 삶과 미션에 어떤 영감을 주는가?

메리 워드 - 단일화를 향한 순례

메리 워드 사후 그를 따르는 이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중대한 투쟁과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카리스마와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메리 포인츠, 프란시스 베딩필드, 테레사 볼과 같은 여성들은 그 정신에 따라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새로이 분원들을 설립하고 공헌하기 시작했다.

IBVM 호주 관구의 설립자인 곤자가 배리 수녀는 1900년 로마에서 모든 메리 워드 수도회를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재결합이 있었다. 1953년에는 CJ 독일어권 수도회가 재결합하였고, 1934년 분리된 오마, 1969년 분리된 네번, 1987년 분리된 페르모이 등 세 개의 IBVM 아일랜드 그룹이 라트판햄으로 돌아와 재결합하였다. 1983년 로마에서 프레데리카 보일 수녀(북미 브랜치), 임몰라타 베테 수녀(로마 브랜치), 아그네스 월시 수녀(로레토 브랜치) 등 3개 브랜치 총원장이 첫 회의를 열었다. 2003년에는 북미 브랜치가 아일랜드 브랜치와 재결합했다. 노엘 코르스캐든 수녀(전임 IBVM 총원장)와 제인 리브시 수녀(전임 CJ 총원장)는 두 총원팀과 함께 순례를 계속하며 모든 회원들에게 성찰과 식별 과정을 시작하도록 초대했다. 참여의 결실은 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합을 제안하고, 목표뿐만 아니라 여정의 모든 단계가 성스러운 공간이자 길이신 주님과과의 만남이 되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걸기로 하며 절정에 달했다. 주님은 우리를 즐겁고도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다.



미지의 바다를 향해한다는 것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기존 모델을 적응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불확실성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현재 두 리더십 팀은 서로를 위로 격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통합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준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무엇이 최선인지 선택하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CJ와 IBVM은 서로 문화가 다르다. 일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우리

기원에 충분히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는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때로는 긴장이 오가기도 하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우리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제3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메리 워드와 이냐시오적 유산을 현대적 모델로 구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연합 순례는 새로움을 재구상하고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두 수도회 모두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과 구조가 도전 받을 때, 정당하지만 경쟁적인 관점이 대두될 때, 촉진자는 우리가 소중한 가치와 역사적 관행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는 실험과 새로운 발견, 조정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불분명하고 드러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두 리더십 팀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새로운 길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위험하고 두렵고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깊이 신뢰하자.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이 이번 주에 함께 떠난 영적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 관구/지구에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상실과 신뢰,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하는 영적 삶과 변화의 역동성이 포함된다. 예수여, 아멘.

성찰을 위한 질문:

- ▶ 교회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에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열려 있는가?





2025 희년 주제곡 성가
- **희망의 순례자들** -
(Pilgrims of Hope)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모든 나라 모든 말과 민족 당신 말씀 빛을 찾네
상처 입은 자녀들을 당신 아들 품에 안아 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나의 위로 자애로운 주님 당신 빛이 우리 비추시네
새 하늘 새 땅 열고 주님 성령 생명 자유 주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눈을 들고 나아가리라 주님 때가 다가오네
사람 되신 아들 안에 많은 이들 길을 찾아 나서네
나의 희망 살아있는 불꽃 나의 노래 하느님께로
영원 생명 샘이신 주님 믿음으로 이 길 걷네

성가 원곡 <https://youtu.be/watch?v=7uXO8IUcEZI>

우리말 노래 <https://youtu.be/watch?v=40ICQIPVhag>

원문: Pierangelo Sequeri 영어 번역: Andrew Wadsworth

음악: Francesco Meneghello



